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5> 이름이나 형상에 얽매이지 말라

‘그 무엇’이란 법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하는 불변(不變)과 중생의 인연을 따라 그때그때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수연(隨緣)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 3장에서 말한 ‘법에 많은 뜻이 있다’라고 한 것은 수연의 뜻을 따랐다고 했다.

이는 변치않는 ‘그 무엇’이 중생의 인연을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선가귀감> 4장에서는 그 드러난 모습에 붙인 이름이나 형상에 얽매어서 알음알이를 내지 말라고 한다.

強立種種名字 或心或佛或家生 不可守名而生解 當體便是 動念即乖

온갖 이름을 억지로 갖다 붙여서 혹 마음이 라 하고 혹 부처님이라 하며 혹 중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름에 얽매어 알음알이를 내서는 안 된다.

그 밑바탕에서는 모든 것이 옳지만 한 생각 움직이면 근본 뜻에 어긋나느니라.

<선가귀감> 1장에서 ‘여기에 ‘그 무엇’이 있는데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3장에서는 중생의 인연을 따라서 ‘그 무엇’이 그때그때의 모습으로 달라진다고 한다.

이때문에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임시방편으로 온갖 이름을 ‘그 무엇’에 갖다 붙여 설명하기도 한다. 유식(唯識)에서는 ‘마음’이라 하고, 반야부(般若部)에서는 ‘공(空)’이라고 하며, 정토종에서는 ‘극락세계’라고 한다. ‘그 무엇’을 ‘깨달음’이라 하고, 이것을 깨친 사람을 우리는 부처

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기신론>에서는 ‘그 무엇’이란 법에 중생심(衆生心)이라고 하여 ‘중생’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 무엇’에 ‘마음’ 부처님 ‘중생’ 공(空) ‘깨달음’이란 이름들을 갖다 붙여 설명하는 것은 중·하근기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임시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쓰신 방법들이다.

팔만사천법문은 이런 임시방편의 가르침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부처님께서 늘 중생의 근기에 따라 ‘그 무엇’에 바

## 방편에만 집착하면 알음알이 내게 돼 시비·분별 끊어질때 8만4천법문 온전

탕을 두고서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공(空)’을 이야기하며 ‘극락 세계’를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조주 스님은 말씀하신다.

若依根說法 自有三乘十二分教 我這裏 只以本分事接人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지만 온갖 법이 있게 된다.

나는 이 자리에서 다만 본분사(本分事)로써 사람을 대할 뿐이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온갖 법’은 곧 팔만사천법문을 말하고 ‘본분사(本分事)’는 ‘그 무엇’을 말한다. 알고 보면 팔만사천법문의 그 밑바탕이 같은 것인데도 여러색은 중생들은 ‘마음’과 ‘공(空)’과 ‘극락세계’로 달라진 표현에만 집착한다.

그것이 ‘그 무엇’에 다가가기 위한 임시방편인줄 모르고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라고 착각한다. 그리하여 방편에 얽매어

서 알음알이를 내게 된다. 근본을 모르고 겉가지에 집착하여 그것이 부처님의 옳은 법이라고 시비하고 분별하게 된다.

선종에서는 부처님의 근본을 몰라서 겉가지에만 집착하고 시비와 분별을 일삼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시비와 분별이 바로 번뇌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조사스님들은 중생의 이런 잘못들을 바로 보시기에 단숨에 이를 고쳐 주고자 한다. 그래서 ‘그 무엇’에 임시방편으로 갖다 붙인 이름이나 허상에 얽매어서 알음알이를 내지 말고 그 근본 바탕을 보라고 한다.

근본과 하나가 되어 대상경계로서의 근본이 사라지고 내가 사라질 때 주객이 사라지고 모든 시비와 분별이 끊어진다. 시비와 분별이 끊어진 마음에서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드러나고 팔만사천 법문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된다. 시비와 분별이 사라진 조사스님의 마음 그 당체(當體) 그 밑바탕에서는 세상의 모든 법이 부처님 법으로서 같아진다.

조사스님이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조사스님이 된다. 이 자리에서

는 모든 법을 드러내거나 없앨 수도 있고 모든 법을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도 있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그 무엇’에 억지로 ‘마음’ 부처님 ‘중생’이라는 세 가지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은 교(敎)의 처지에서는 부득이한 일이었고, 이름에 얽매어 알음알이를 내지 마라는 것은 선(禪)의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온갖 법을 마음대로 삼리고 죽이며 내세우고 거둘 수 있는 것은 모두 온갖 법의 왕이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이 자유자재하기 때문이다.”

하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뜻을 모르고 한 생각 일으켜서 시비와 분별만 일삼는다면 바로 근본 뜻에 어긋나니, 조심하고 또 조심할 일이다. 서산 스님은 계승으로 말한다.

久辱逢佳雨 他鄉見故人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반가운 비요  
천리타향에서 만난 옛 고향 친구로다.

■원승 스님(송광사 인월암)

##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 부전, 지전, 노전스님은 어떤 분?

“노전스님, 어디 계세요? 저희, 기도 올려야 하는데요.” “부전스님, 이것 좀 같이 해요.”

절 집에 가면 흔히 말하거나 듣는 말이지요. 그럼 ‘노전·부전’이란 말이 스님의 법명일까요? 아닙니다. 소입입니다. 노전(禮殿), 부전(副殿), 지전(知殿)은 법당에서 부처님께 향과 초를 올리며 불공, 염불, 마지 등 의식을 맡아 하는 스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전은 향로전(香爐殿)의 줄인 말로 기도를 도맡은 스님을 일컫습니다. 지전은 주로 선원에서 쓰는 말로 맡은 일은 노전과 같습니다. 흔히 지전(持殿)이라고도 사용되지요.

부전은 때로 부존(副尊), 부전(副殿)으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부전은 일반적으로 노전이나 지전스님이 혼자서 불공 기도 법당 관리를 하다 보니, 일손이 모자라 이들 스님들을 보좌한다는 뜻에서 ‘부(副)’자를 넣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큰 절에서는 대웅전을 맡고 있는 노전 밑에 지전이나 부전을 두어 관음전 등의 작은 전각을 맡게 하거나 노전스님의 일을 돕게 했습니다.

김철우 기자

##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80)

###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 2부26강 : <금강경>의 콘즈 영역 소개

산스크리트에서 번역한 콘즈(E. Conze)의 <금강경> 영역본을 한번 맛보여드리도록 한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제는 한역 보다 영역이 더 우리말에 가까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마라습의 한역이 원본 산스크리트본과 어떻게 다른지를 짚어보시라는 뜻에서이다.

#### 콘즈의 <금강경> 2장 영역

2. At that time the Venerable Subhuti came to that assembly, and sat down. Then he rose from his seat, put his upper robe over one shoulder, placed his right knee on the ground, bent forth his folded hands towards the Lord, and said to the Lord: ‘It is exceedingly wonderful, O Lord, it is exceedingly wonderful, O Well-Gone, how much the Bodhisattvas, the great beings, have been helped with the greatest help by the Tathagata, the Arhat, the Fully Enlightened One. It is wonderful, O Lord, how much the Bodhisattvas, the great beings, have been favoured with the highest favour by the Tathagata, the Arhat, the Fully Enlightened

One. How then, O Lord, should a son or daughter of good family, who have set out in the Bodhisattva-vehicle, stand, how control their thoughts?’

After these words the Lord said to the Venerable Subhuti: ‘Well said, well said, Subhuti! So it is, Subhuti, so it is, as you say! The Tathagata, Subhuti, has helped the Bodhisattvas, the great beings with the greatest help, and he has favoured them with the highest favour. Therefore, Subhuti, listen well, and attentively! I will teach you how those who have set out in the Bodhisattva-vehicle should stand, how progress, how control their thoughts.’ ‘So be it, O Lord’, replied the Venerable Subhuti and listened.

#### 콘즈의 영역을 번역해보면

- 1. 수부티가 청하다.
- 2. 그때 수부티 어른신이 그 모임에 와서 앉아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의 옷을 걷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구원자께 합장해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멋져진 일입니다. 구원자시여! 참으로 멋져진 일입니다. 잘 가신 이어! 위대한 사람, 보살들에게 온전히 깨달은 사람, 여래, 아라한이 준 그 크디 큰 도움을! 멋져진 일입니다. 구원자시여! 위대한 사람, 보살들에게 온전히 깨달은 사람, 여래, 아라한이 지운 그 높디높은 부탁이라니! 그렇다면 구원자시여, 보살의 수레로 나선, 좋은 집안의 아들이나 딸이 어떻게 서고, 어떻게 나아가며,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까?”

“그려서야지요, 구원자시여!”라고 수부티 어른신이 대답했고, 그리고 그는 들었다.

## 마하살, 깨달음의 위대한 영적 영웅

이 말을 듣고, 구원자께서 수부티 어른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 잘했다. 말 잘했다. 수부티야! 그렇다. 수부티야, 내가 말한 그대로다. 수부티야! 여래는 위대한 사람, 보살들에게 크디 큰 도움을 주었고, 그들에게 높디높은 부탁을 지웠다. 그러나 수부티야, 주의 깊게 잘 들어라. 내 너에게 가르치노니, 보살의 수레로 나선, 좋은 집안의 아들이나 딸이 어떻게 서고, 어떻게 나아가며,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가다듬어야 하는 지를.”

“그러서야지요, 구원자시여!”라고 수부티 어른신이 대답했고, 그리고 그는 들었다.

#### 콘즈가 붙인 몇 가지 주석들

수부티(수보리): 아나타핀디카의 조카. 무대가 되고 있는 이 정사가 완공된 기념으로 부처가 행한 설법을 듣고 출가를 결심했다. 생각과 길이 다른 사상가들에게 필박과 모

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성품을 지녔다 한다.)

테라바다(상좌부)나 사르바시타바(설일체유부)에서는 부처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대승반야부 경전에서는 ‘지혜의 완성(반야바라밀)’과 ‘비어있음(śūnyatā)’을 해설하는데 가장 뛰어난 인물로 등장한다.

<증지부아함경(Anguttara Nikaya)에서는 그를, 자비에 대한 명상을 바탕으로 아라한을 성취한 제자로, 또 구부나 한계 없는

되, 고통받는 못살(衆生)들을 위해, 니르바나의 축복으로 들어가기로 연기하고 있는 사람. 나고 죽는(生死輪廻)이 세계로부터 벗어나기를 미루고 있는 성자들을 가리킨다.

원어는 Bodhisattva, bodhi(깨달음)-sattva(존재 또는 본질)로, ‘깨달은 사람’ 혹은 ‘깨달음의 본질을 구현한 사람’이란 뜻이다. 문맥에 따라 글자 그대로 ‘깨달은 사람’이라 옮기기도 했다.

위대한 사람(마하살): 원어는 mahāsattva.

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티베트인들은 mahāsattva를 ‘위대한 영적 영웅’으로 번역한다.

<불사의경(Acintya-sutra)>에 의하면 그의 바람은 진정 영웅적 스케일의 것이다: 그는 모든 곳의 모든 삶들을 교화시킬 것과, 모든 곳의 모든 부처들을 받들고 기릴 것과, 모든 곳의 모든 부처 나라를 정화시킬 것을 열망한다. 모든 부처들의 가르침을 마음 속에 단단히 보지하기를 원하며, 모든 부처 나라의 세세한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며, 부처를 둘러싼 모임이라면 무엇이든 파악하기를 원하며, 모든 존재의 생각 속으로 뛰어 들어 그들의 때를 벗겨주고 그들의 가능성을 재보고 싶어한다.

보살의 수레로 나선(발보리): <반야부> 경전들은 구원에 이르는데는 몇몇 다른 방법도 혹은 길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대체로 세 가지 ‘수레’를 든다. 아라한의 수레, 연각(緣覺)의 수레, 그리고 보살의 수레. 좋은 집안의 아들(선남자): 원어는 kulaputra, kula(가문)-putra(아들). ‘훌륭한 정신적 자질’을 지녔거나, ‘사회적으로 훌륭한 지위’에 있거나, 혹은 돌다리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강연 등에서 예를 차리는 공식적인 어사일 뿐, 엄밀한 의미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의 물음은 이런 것이다. “어떻게 완전한 지혜를 실천할 것인가?”

“선다” 혹은 “깃든다”는 말은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결심을 가리킨다. (그 결심이 보살의 행동 전체를 좌우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아가다”는 것은 명상과 지혜를 향한 스테디한 성장을 가리키며, “생각을 가다듬는다”는 것은 그의 마음 안쪽의 중요한 중심에서 흐트러지려는 경향을 다잡는 능력을 가리킨다.

■한국학중앙연구원